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누가복음 8장 26절~48절 강해 설교”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48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209장(새찬송가 285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48절까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26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시니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웠도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나 물으시니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 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거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네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① 나사렛 동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리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자공심을 손상하는 말을 하였다고 판단한 때문이었습니다.

② 거라사 동리 사람들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 놓여나서 정상인이 된 것보다 악령들이 돼지 떼에게 들어감으로 돼지 떼들이 호수로 들어가 몰사한 재산상의 손해에 집착한 까닭입니다.

③ 가버나움 동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을 떠나시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은혜를 받았으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크게 감동하였기 때문입니다.

④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의 선동과 사주로 모인 사람들에게 총독 빌라도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하니 무리들이 다 대답하기를 “집사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 (마 27:22)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 사람의 반응과 태도는 영생과 천국이나 멸망과 지옥이나를 결정 짓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 부류 중 그 하나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성경대로 알고 믿으며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정녕 복 있는 사람입니다.

40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 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웅위하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웅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이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서편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도착하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급히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즉시 온 마음으로 간청하였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회당장과 함께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떠밀면서 따라갔습니다.

그 때 유독하게 얼굴이 창백한 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 환자였습니다. 무려 열두 해를 혈루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의사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 의사들의 처방대로 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만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여인이 그 몸을 이끌고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예수님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웅위하더라” 하였습니다. ‘웅위하다’는 원어를 사전적 의미대로 말하자면 ‘거

의 질식시킬 정도로 밀어붙여 압박하다’는 뜻입니다. 무리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단순히 둘러싸서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몰려들어 밀착된 상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급한 마음으로 재빨리 걸어가는 회당장과 더불어 예수님도 총총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편 창백한 여인은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마음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슨 이유로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건장한 남자들로 인하여 몇 번이나 뒤로 밀려났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인은 이를 악물고 뺨만 남은 앙상한 팔을 내밀어 무리들 사이를 헤집고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여위고 핏기 없는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출혈이 그쳤습니다.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다 형언하기 어려운 기쁨이 여인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어 섰기 때문에 에워싸 따르던 사람들이 일제히 뒷걸음을 쳐야 했습니다. 이 뜻밖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은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에워싸 떠밀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하고 둘러보시니 눈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들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밀고 가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대기보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기치 못한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질문하신 의도를 해석했습니다.

① 어색하고 설렁한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반문했습니다. “주님,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나 현실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②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떠밀기 때문에 걷기가 불편하거나 혹은 불쾌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따르도록 요청하는 행동으로 알았습니다.

③ 병이 나은 여인의 생각은 어떠하였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할 병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혈루병자가 접촉한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자신의 무례한 행동이 예수님에게 발각되었고 드디어 예수께서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예수님의 질문하신 의도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 들을 때 자신의 경험과 취향에 맞추어 이해하려고 하므로 말씀의 참된 뜻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곧 명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니 혈루증을 고침 받은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초지

증을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병자가 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자 둘러선 무리들이 모두 의논이나 한 것처럼 “오, 저런!”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나쁜 여자 같으니”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하혈이 계속되는 병으로 난치병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몸과 마음이 함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혈루증은 율법의 의식법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레 15:25~27)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본인이 부정할 뿐 아니라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접촉된 물건과 사람은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 곳에 둘러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둘러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며 나아가는데 그 중에 부정한 병을 가진 여인이 있어서 옷에 손을 댄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내었을까’라고 생각하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의 의식법을 어긴 이 여인을 향해 질타하실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혈루증을 고쳐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름난 의원은 다 찾아다녔고 처방대로 하느라고 온갖 고통을 다 견디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졌으며 이제는 가산이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는 세세하게 기록하지 아니했지만 혈루증을 고침 받은 여인의 진술이 더 이어졌을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저는 도저히 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례하고 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에 미운 감정은 누그러지고 대신 동정심이 생겨났습니다. 그 여인의 창백한 얼굴과 쇠약해진 몸 그리고 초라한 행색이 더욱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 5:34). 예수께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 가시던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마 13:12)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고침 받은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는 은총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딸아”라고 부른 다정한 호칭과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는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해 동안이나 부정한 병에 시달리며 멸시받던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이제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결함이 회복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평안”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

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둘째 이유는, 예수님의 옷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혈루병자가 낮게 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집을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리셨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혈루병이 나은 여인은 슬며시 뒤로 물러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가족에게 다음은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옷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그들의 영토 내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교섭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편하고 빠른 왕의 대로 대신에 먼 홍해 길로 돌아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므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비로소 백성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모세에게 중재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눗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하였고 눗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눗뱀을 사람들이 기념물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나중에는 눗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물이 되었습니다. 유다 국가 열네 번째 왕인 히스기야는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고, 점치는 것과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여호와를 섬긴다는 명분의 숭배물들도 제거하였습니다. 히스기야왕이 눗뱀을 제거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를 기념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숭배의 목적으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구리 뱀을 바라보면 해독되어 죽음을 면했습니다. 구리 뱀이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치료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사람들은 구리 뱀에게 더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폐단이요, 사탄의 꾀계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다시 혈루증 여인에 관한 기록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가 “주님,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 여인의 혈루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온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은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에 접촉하는 접촉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치료하는 능력의 출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밀면서 옷을 만졌으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옷이 치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셋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도록 허락된 것이니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권능에 접촉하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이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았으니 극도의 빈혈상태였을 것입니다. 일어서기만 해도 아득아득할 터인데 예수님을 에워싼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필사적으로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

오. 몸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앙상한 팔을 내젓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가련한 여인을 향하여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어 들어보십시오. 만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지 않으시고 회당장 아이로의 집으로 가셨다고 하면 이처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사건은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혈루증 나은 여인의 입으로 자신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즉시 낮게 되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신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권능에 접촉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주님을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령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많은 만짐 가운데 별다른 만짐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만짐과 구별되는 만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도록 한 만짐이었습니다. 그 별다른 만짐은 ‘믿음으로 손을 댄 만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하신 말씀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구경꾼으로서, 관람자로서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며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식을 가진 것에 불과하면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이단에 대하여 듣고 알면서도 자신의 사욕으로 인해 그런 조직으로 소속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소위 교역자라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이고 믿음은 없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의 행위가 이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억만금을 주어도 그러한 처신을 하지 않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어 접촉한 것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겉옷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접촉할 수 있는 예수님의 겉옷은 성경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성경말씀을 붙드십시오. 순종의 손으로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바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므로 구원을 얻은 여인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이 다 보고 듣도록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행함으로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능력과 응답을 받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